

##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전 현 주  
(세종대)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다음은 최근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우리나라 번역의 현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다. ‘대리번역’, ‘이중번역’, ‘실제 번역자는 따로 있다’<sup>1)</sup>, ‘번역이 아니라 황당무계한 억측을 가미한 의역이다’, ‘번역이 아니라 편역이므로 ‘황당무계한 억측’이란 말은 문제가 있다’<sup>2)</sup>, ‘출판사 측은 오역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애초 번역가의 양해 아래 25쇄부터는 외국소설 전문 번역가의 감수와 손길을 거친 개역판을 출간하기로 했다.’<sup>3)</sup>..... 주로 번역의 질과 역자의 윤리를 문제 삼는

- 
- 1) ‘대리번역’ 논란과 출판계의 부끄러운 자화상. <경향신문> 2006-10-13.
  - 2) ‘이윤기씨 ‘그리스 로마신화’번역 논쟁’. <매일신문> 2004-06-14.
  - 3) ‘소설 ‘다 빈치 코드’ 오역 시비로 곤욕’. <연합뉴스> 2005-03-06.

이들 기사는 즉각적인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급기야 출판사와 번역가의 변명이나 사과 혹은 개역판 출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번역서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현실<sup>4)</sup>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대책 없이 번역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일회성 사과나 ‘출판사의 관행’으로 귀결 짓는 미봉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미 번역은 대중들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쟁점의 중심에 있는 번역가는 수준 높은 번역본을 출간하기 위하여 어떤 번역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번역가의 성공 여부는 자신의 번역 텍스트의 성공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적인 검증을 통과한 번역 텍스트’를 ‘용인성을 확보한 번역 텍스트’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이란 ‘번역 텍스트의 내적·외적 신뢰성의 확보’를 의미한다. 번역 텍스트가 용인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될까? 번역 텍스트(TT)는 원천 텍스트(ST)에 대한 2차적 산물이므로 아무리 목표 문화에서 번역물의 위상과 역할이 중대하여도 원천 텍스트와 완전히 분리하여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다. ST와 TT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번역 비평 텍스트는 용인성의 요건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번역 비평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번역물의 용인성 확보를 입증하는 공개적인 창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 비평 텍스트는 비평의 속성상 비평가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 비평가의 비평 전략을 상호 비교 분석하면 번역 작품의 용인성을 부여하는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성과 보편성을 체계화하면 향후 번역가들이 번역 전략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될 만한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번역가의 번역 행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의 연구방법 및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대한출판문화협회 ‘최근 10년간 번역도서 종수(1995-2004)’에 따르면 2000년 100을 기준으로, 문학분야의 번역도서 비율은 1995년 108.1에서 2004년 140.7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비문학 분야 중 사회과학분야는 76.7에서 178.3으로 참고서를 제외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참고 사이트 <http://www.kpa21.or.kr/dataroom>

## 1.2 연구방법 및 대상

본 논문에서 다루는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검증은 번역 비평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번역 평가 및 비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방향과 범위는 흠즈의 번역학 분류를 적용하면 응용 번역학의 하위범주인 ‘번역 비평’ 분야에 속한다. 또한 연구 방법 면에서 ST와 TT를 비교 분석한 번역 비평 텍스트를 분석하므로 순수 번역학의 하위범주인 기술 번역학의 세 가지 방법 중 결과물 중심 연구에 속하며, ST와 TT의 비교 분석 결과를 번역 이론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체계화하는 방법은 이론 번역학에 속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검토하는 방식 및 분석의 모태는 투리(Toury)의 ‘용인성’ 관련 이론을 원용하였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번역 현상을 모두 고찰하여 이론에 적용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번역 현상을 비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한 번역 비평 텍스트를 중심으로 각 비평가들이 번역본의 내·외적인 용인성을 부여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평가기준과 요소 등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평가 기준과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번역가들이 번역 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 이는 번역가와 출판 관계자들이 번역 텍스트의 기획 단계부터 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용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물의 생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전제한다. 첫째, 번역학 이론의 목적은 다각적인 TT의 용인성 검증을 위한 준거 지침을 마련한다. 둘째, 번역 비평 텍스트는 TT의 용인성을 부여하는 공개적인 창구 역할을 한다. 셋째, TT의 용인성 확보는 모든 TT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 다룰 분석 대상 번역 비평 텍스트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평가는 물론 비평 대상 번역 텍스트의 역자와 서지목록 등이 제시된 실명비평 번역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았다. 번역 텍스트의 장르별 용인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각각 16개와 11개의 문학 및 비문학 번역 비평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목표 언어는 한국어이며, 원천 언어는 문학 장르는 영어에 국한한 반면 비문학 장르는 영어 외에 독일어, 희랍어, 이탈리아어 등도 포함하였다. 이는 원전 번역을 중시하는 풍토 등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비평가와 비평 매체의 전문성 그리고 지속성과 현재성을 고려하여, 전문 비평가들의 번역 텍스트 비평 논문을 신는 지면이나 칼럼을 장기적이며 고정적으로 할애하는 비평 전문지, 『안과밖』의 「번역을 짚어본다」와 전문신문 『교수신문』의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에 수록된 다수 혹은 일부의 번역 비평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번역 비평 텍스트의 목록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 II.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본 논문의 핵심어인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은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번역의 용인성’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투리는 기술 번역학에서 ‘번역의 용인성’과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모두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번역 텍스트를 관찰해 보면 ‘적절성’과 ‘용인성’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Toury 1980: 55, 1995: 57))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용인성은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 전략으로 ‘자유번역’, ‘외현적 번역’ 혹은 ‘자국화 번역’ 등과 같은 번역 방법론으로 ‘번역의 용인성’과 관련된다. 한편 투리는 “번역은 목표 언어의 사회 및 문화 시스템 내에서 어떤 위치를 우선적으로 점유하며 그 지위에 따라 번역 전략이 좌우된다”(Toury 1995: 13)고 하였다. 그리고 ‘번역본의 용인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연구방식으로 접근하는 3단계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 중 “연구 대상 텍스트를 선정한 후 목표 언어 시스템에서 텍스트의 ‘중요성’ 혹은 ‘용인성’에 주목할 필요성”(Toury 1995: 38, 70-72)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용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절본이나 중복 출판본 등을 가려내는 작업은 물론 ST와 TT를 비교하여 내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용인성’은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은 물론 내적인 용인성과도 관련된다. 투리의 ‘용인성’ 이론을 정리하면 전자는 ‘번역 텍스트의 내적 용인성’과 관련되며, 후자는 ‘번역 텍스트의 내·외적인 용인성’과 관련된다. 다시 말하여 ‘번역의 용인성’은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에 포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리의 ‘용인성’ 이론을 원용하되, ‘번역의 용인성’은 ‘번역 텍스트의 내적 용인성’에 국한되므로, ‘번역 텍스트의 내·외적 용

인성'을 의미하는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 2.1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검토

앞서 제시한 분석 대상 번역 비평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비평가들이 번역 텍스트와 관련하여 주목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령, ST 및 TT의 작가 및 작품의 위상, ST 출전, TT 출간 이력, 번역 환경, 역자의 배경지식, 평가 기준, 번역 전략, 어휘 및 구문, 문단 나누기, 수사법, 문체, 결속성, 저자의 의도, 우리말 어법, 관용어, 시제, 문법, 역자주, 첨가, 누락 및 오식, ST의 오류, 역자의 착오, 외래어 사용, 한자어 사용, 어조나 화법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비평가에 따라 번역본에 나타난 오류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 및 전개 방식, 대안 제시, ST와 TT의 비교 방식, 비평에 임하는 태도 및 전문성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비평에 관계하는 요소를 크게 텍스트의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으로 나눈다. 그리고 텍스트의 내·외적인 면과 관련된 두드러진 현상들을 중심으로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점검한다. 이러한 방식은 투리가 텍스트 내적 요소와 텍스트 외적 요소에 기반하여 번역 과정에 존재하는 규범을 정리하고 재구성(1995: 65)한 방식과도 부합된다. 먼저 번역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비평가의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점검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번역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점검 요소

평가주체	비평가의 태도, 전문성, 서술방식	
평가방법	ST : TT의 비교 범위 및 비교방식, 평가 기준(충실성, 가독성), 평가 방식	
텍스트 외적 요소	ST 및 TT의 작가 및 작품의 위상, ST 출전, TT 출간 이력(중역, 표절본, 발췌본 등 점검), 번역 환경, 역자의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번역 전략, 독자반응, 역자 후기, 역주	
텍스트 내적 요소	어휘적인 면	어휘, 고유명사, 방언, 관용어, 표기법, 한자어, 외래어 사용 등
	의미적인 면	저자의 의도, 수사법 등
	통사적인 면	문법(시제, 어순, 수식, 대명사 등), 문장부호, 역자의 부주의(첨가, 누락, 탈자, 오식 등)
	화용적인 면	① 문체 : 어투(구어체, 문어체, 고어투, 현대어투, 대우법), 우리말 어법, 서술 기법 등 ② 결속성 : 단락처리, 접속사, 호응관계, 문맥, 등장인물 간의 관계, 인물이나 대상 묘사의 일관성 등
형식적인 면	가로쓰기(세로쓰기), 문단 나누기(혹은 합치기), 역주 등	

위의 표에 명시한 내용 중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고 분석 대상 번역 비평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텍스트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상위 3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텍스트 외적 요소에서 다룰 내용은 TT의 출간 이력, 역자의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그리고 번역 전략을, 텍스트 내적 요소에서는 어휘, 문장과 문단, 그리고 역자의 부주의(첨가, 누락, 오식 등) 등이다.

### 2.1.1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 점검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비평가들이 주목하는 TT의 출간 이력, 역자의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그리고 번역 전략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2.1.1.1 TT의 출간이력

투리(1995: 70-72)는 “번역본의 용인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맨 먼저 번역본을 찾는 작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평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비평가들은 분석 대상 TT를 선정하기 전에 TT의 용인성을 먼저 검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평가들이 ST와 TT의 서지정보를 중심으로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점검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역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번역 행위는 목표 지향적이며, 번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번역 의뢰인(출판사)는 물론 역자와 저자 그리고 목표 텍스트 독자 등이 상호작용해야 번역텍스트가 생산’(Nord 1997: 20-22)되기 때문이다. ST에 대한 TT의 서지 정보를 활용하여 TT의 출간 이력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번역의 질을 논하기 전에 먼저 ST의 서지 정보 명기 여부, 역자, 출판사, 판본의 이력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출간본 혹은 최근 출간본, 동일 역자의 여러 판본 유무, 판본간의 차이점, 동일 판본의 여러 출판사 출간 유무 등을 가린다. 그 결과 표절본, 중복 출판본, 중역본, 발췌본, 요약본 등을 제외한 ‘완역된 독자적인 번역본’에 일차적인 용인성을 부여하고 비평 대상 텍스트로 삼는다. 비평가들이 번역가와 출판사의 윤리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번역 행태⑤에 대하여 비평가들은 가차 없이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박탈한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축약본을 검토 대상 텍스트에서 제외할 예

“우선 많은 수의 번역본들이 축약되었거나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생

5) 우리나라 번역 문학을 개관하면서 양적인 팽창에 비례하여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김병철 1998: 230). 이러한 실례는 번역본의 용인성을 점검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번역본과 역자에 대한 용인성을 제한해야 한다.

- ① 다른 번역가가 번역한 일역 오역을 그대로 전사하는 경우
- ② 매명 행위(賣名 行爲) : 돈에 팔려 번역은 하지 않고 역자 명의로만 빌려 주는 행위
- ③ 감수 행위(監修 行爲) : 번역은 말뚝 제자 등에게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맡긴 후 수합하여 자기 명의로 책을 내는 행위
- ④ 전매 행위(轉賣 行爲) : 번역물을 여러 출판사에 파는 행위
- ⑤ 임대 행위(賃貸 行爲) : 자기가 번역한 작품을 판권을 자기가 갖고 일회 출판사 용료 얼마를 받고 여러 출판사에 빌려주는 행위
- ⑥ 표절행위
- ⑦ 무국적 번역 행위 : 일본어를 무기로 쓴 원고료로 닥치는 대로 전세계의 작가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는 행위
- ⑧ 변조 행위(變造 行爲) : 장편의 몇 군데만 옮겨 놓는 행위
- ⑨ 저자명 교환 행위 : 똑 같은 작품을 두 사람이 번역했을 경우 역자명을 합의 교환하여 다시 판매하는 행위

략한 경우가 많았다. 서로 모방하거나 중역을 한 번역본을 제외하고 ..... 등 원본에 비교적 충실한 번역본을 1차 검토 대상 도서로 삼는다.”(장정희, 조애리 『제언어』 : 155-56)<sup>6)</sup>

2) 동일한 역자의 동일한 판본이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된 예

“『아들과 연인』의 번역본은 10여 종에 이른다. 그런데 동일한 번역자에 의한 번역본이 별다른 수정 없이 출판사만 바꾸어 출간한 경우가 많았다. 김재남의 경우 삼중당(1976) 판본이 혜진서관(1990)에서 그대로 출간되었다.”(유두선 『아들과 연인』 : 291)

“윤종혁의 삼성출판사에서 출간된 1974년 초판본은 1975년 판본과 동일할 것으로 짐작되며, 1982년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도 검토하였으나 1975년 판과 동일본이었다’ 그리고 ‘설순봉의 1982년 주우사 번역본도 1994년 학원사의 판본과 동일본이었다.”

(황정아 『무기여 잘 있거라』 : 244)

3) 전체적인 표절본의 예:

“박영희의 번역판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1996년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 번역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번역이 아니라 20년도 더 된 오석규(1974)의 번역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다 시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아무데나 뒤적여 임의로 한 부분을 골라 두 번역판을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난다.”(이인규 『올리버 트위스트』 258)

4) 부분적인 표절본의 예 :

“..... 등의 번역상의 오류 등은 2003년 황보석의 출간본과 1996년 한기찬의 출간본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역된 구체적인 부분들은 두 번역본 사이에 상당한 일치를 보인다. 우연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유사하고 동일한 실수가 이어진다. .... 이같은 현상에는 시장기체에 전적으로 지배되는 출판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유정원 『뉴욕 3부작』: 246)

6) 출전을 명기하는 방식은 『안과밖』에 실린 번역 비평 텍스트는 (비평가 이름 『비평 작품명』: 쪽수)로 표시한다.

『교수신문』에 실린 번역 비평 텍스트는 (비평가 이름 『비평 작품명』)으로 표시한다.



## 5) 중복번역본의 예 :

“번역본들의 대동소이한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다. ....특히 최신 번역본이 선배 번역자의 오류마저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ST : ..... It is not easy to estimate exactly the strength and warmth of one's feelings for a woman till they have run away with one.

TT : .....그러나 여자에 대한 애정의 힘과 정열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일단 헤어져 본 다음이 아니면 용이한 일이 아닌 것이다.(김재남 1958 하권: 130-1)

..... 그러나 여자에 대한 애정의 강도와 열도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일단 헤어져 본 다음이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양병탁 1976: 330)

..... 그러나 여자에 대한 애정의 힘과 정열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일단 헤어져 본 다음이 아니면 용이한 일이 아닌 것이다.(유영 1988: 312)

..... 그러나 여자에 대한 애정의 강도와 열정을 정확히 평가하기란 일단 헤어져본 다음이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김정환 1996: 391).” (유두선 『아들과 연인』: 295-96)

위의 예를 살펴보면 1958년 김재남의 초간본을 기준으로 나머지 역본들은 밑줄 친 ‘애정의 힘’을 ‘애정의 강도’로 ‘정열’을 ‘열도’로, ‘정확히 평가하기는’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김재남의 번역을 양병탁, 유영, 김정환이 모두 참조본으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덧붙여 가장 최근 번역본의 역자 김정환은 양병탁의 역본에서 ‘열도’를 ‘정열’로 바꾼 것 외에는 똑같이 번역한 것으로 보아 김재남의 역본을 양병탁이 참조한 것을 김정환이 다시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 ‘압도하다’는 의미의 ‘to run away with’를 모두 ‘헤어지다’로 한결같이 번역하였다”(유두선 『아들과 연인』: 296). 이는 중복 번역은 오역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 5) 중역

비평가들은 원전 번역을 매우 중시한다. ‘원전의 번역본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는 중역'은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번역 관례로 규정짓지만 중역본이 원전 번역보다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는 등 비평가와 번역의 질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다음은 중역에 대한 비평가들의 엇갈린 시각을 보여주는 예이다.

① 중역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예 :

“거의 모두가 중역본인 상태에서 ‘가장 훌륭한’ 번역본을 고르기는 어렵다. 중역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최소 10퍼센트 정도는 부족한 면이 생기기 마련이다.” (곽차섭 『로마사 논고』)

② 중역이 원전 번역보다 우수함을 지적하는 예 :

“당연한 말이지만 고전의 번역은 원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원전을 번역했다 해서 번역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번역자 개인의 능력과 학문적 성실이 뒷받침되어야 중역보다 나은 원전 번역이 나올 수 있다. 『정치학·시학』의 나중일의 역본은 영역을 대분으로 삼은 중역본이며, 25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가장 최근의 번역서이다. 번역이 무난하다는 점에서 원전 번역인 김원수, 천병희 공역보다 낫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주일 『정치학·시학』).

“『자본론』 김수행 역본은 독일어 원전 번역은 아니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독일어 원전 번역을 제치고 “가장 신뢰할 만한 번역서”로 꼽혔다. 역자가 국내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대가로서 “정치경제학에 충분한 번역 역량”을 갖고 있으며, “충실한 주석 작업”과 “꾸준한 개역 작업”을 해 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홍영두 『자본론』).

“박준택 역본은 일본 압과 문고판의 번역을 그대로 한글로 옮긴 중역본이지만 이진우 역에 비하여 정확할 뿐 아니라 읽기도 훨씬 자연스럽다.”(박찬국 『비극의 탄생』)

지금까지 번역본의 외적인 용인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비평가들은 표절본이나 중복 번역본 등 역자와 출판사가 지켜야 할 윤리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ST와 TT의 서지 정보를 기초로 삼는다. 서지 정보를 명기할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7)

따라서 역자와 출판 관계자들은 번역본의 출간시 외적인 용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1차적 요건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독자적인 번역본’ 작업에 임해야 하며 ‘ST는 물론 TT의 서지 정보를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

#### 2.1.1.2 역자의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

비평가들이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점검하는 텍스트 외적 요건 중 ‘역자의 작품에 대한 배경지식’을 포함하는 ‘역자의 번역 역량’에 관하여 많은 지적을 하였다. 역자의 번역 역량은 작품의 번역의 질을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역자는 ST에 나타난 가치관과 생활양식 및 민족성 등을 추론하여 역어 문화권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간문화 능력’(김효중 2004: 59) 혹은 ‘문화 해독력’(유정완 227)으로 번역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는 밑거름이다. 비평가들이 주목한 역자의 배경 지식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자는 작가의 사유 세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혜정 『앨리스』: 187-89)

“역자는 ST : TT의 거리를 유지하고 ‘번역과 번역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ST의 이론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해독력을 갖추어야 한다(문화 해독력 cultural literacy). 그렇지 않으면 문화적 문맹(cultural illiteracy)으로 이어진다.”

(유정완 『뉴욕 3부작』: 227)

역자가 ST를 감당할 만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경우 ‘문화적 문맹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역자가 자신의 번역 작품의 용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ST의 저자와 작품에 정통해야 한다. “역자는 해당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며 언어적 감각과 성실성은 물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성이란 번역을 생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학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다는 의미이다(김

7) “표절본 관계를 정확히 알아내려면 각 번역본의 초판본 연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표절 대목이지만 분명한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경우 혹은 어느 판본을 밝힐 수 없는 때도 있다.” (황정아 『무기여 잘 있거라』 : 243-44)

순원 『프랑켄슈타인』 277-78). 따라서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으로 대상 번역 텍스트에 있어서 ‘역자의 총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번역가’가 되어야 한다.

### 2.1.1.3 번역 전략

비평가들이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을 점검하는 세 번째 요소로 ‘번역 전략’을 주목한다. 작품 전체의 번역의 향방을 설정하는 역자의 번역 전략은 전통적으로 ‘충실한 번역’과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번역 전략은 시대와 이론에 따라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경쟁하며 분화하여 현대의 번역 이론은 “가능한 ‘충실한 번역’을 하지만 필요에 따라 ‘가독성을 겸비한 번역’”을 권장하는 상호 보완적인 번역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가령, 베누티는 번역 텍스트가 목표 문화에서 읽히는 전형적인 경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번역 텍스트는 장르를 막론하고 유창하게 읽히며, ST의 언어적 특성이나 문체상의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투영되어(transparent), ST 작가의 개성이나 의도 혹은 ST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한 듯한 느낌을 줄 때, 대부분의 출판 관계자, 비평가 그리고 독자로부터 용인할 수 있는(acceptable) 텍스트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텍스트는 TT가 아닌 ST의 외관(appearance)을 지니고 있다.” (Venuti 1995: 1)

베누티가 지적한 ‘유창하게 읽히며’는 ‘가독성’을, ‘ST 작가의 개성이나 의도 혹은 ST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은 ‘정확성’을 뜻한다. 다시 말해 번역본은 원전의 파생물로서 ‘ST다운 TT’가 될 것을 주문한다. ‘ST다운 TT’가 되려면 ‘가독성’과 ‘정확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지향하는 번역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번역 비평 텍스트를 살펴보면 비평가는 대체로 ST에 충실한 TT를 작품 분석의 전제조건으로 출발하지만 독자를 고려하지 않는 충실성은 가독성을 잃기 쉬우므로 충실성과 가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나 우리말 어법이 부자연스럽다’는 평이 바로 이런 경우다. 물론 비평가에 따라서 번역 텍스트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충실성’ 혹은 ‘가독성’을 각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비평가들이 주목하

는 번역 전략의 유형에 관한 예이다.

1) 충실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김인순 역본과 조대경 역본은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다 하지만 27쪽에 20여개의 오류가 있다는 것은 두 번역본이 결코 충실한 번역이 아님을 말해준다. .... 『프로이트 전집』의 여러 번역본을 원문과 대조한 결과 충실한 번역본은 하나도 없었다.” (이덕하 『꿈의 해석』)

2) 가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TT는 ST의 자구를 해석하는 차원을 벗어나 완전히 자연스러운 자국어로 쓰여진 작품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조철원 『월든』: 173)

3) 충실성과 가독성의 폐해를 지적하는 경우

“직역은 ‘원본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읽어도 ST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259). 그러나 ‘학자적인 고지식함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읽기가 곱스럽다’(269). 한편 ‘의역은 말을 조금씩 바꾸어 쉽고 편안하게 읽히는 자연스러움이 있다’(269). 그러나 ‘과잉번역이 될 수 있다’(270).” (김순원 『프랑켄슈타인』)

4) 충실성과 가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예

“문학작품 번역의 목표는 가장 원본에 가까운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진경 『모비딕』: 88)

“고전 번역의 완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원전의 충실성과 가독성이라고 여겨진다.”(박찬국 『비극의 탄생』)

다음은 분석 대상 번역 비평 텍스트의 평가 기준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문학과 비문학 텍스트에서 ‘정확성(충실성)’과 ‘가독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번역 텍스트에 용인성을 부여할 때 적용하는 평가 기준임을 알 수 있다.

<표>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점검하는 평가 기준

장르	분석 대상 작품명	평가기준	장르	분석 대상 작품명	평가기준		
문 학	『월든』	가독성, 의역	비 문 학	『국가』	충실성, 가독성		
	『테스』	가독성			충실성		
	『아들과 연인』	온전성, 정확성, 충실성			『정치학』	충실성	
	『씨일러스 마너』	충실성, 가독성				『시학』	가독성
	『걸리버여행기』	충실성, 가독성			『군주론』, 『로마사 논고』		정확성과 적절성(개념어와 상용문구 확인), 가독성, 주석의 정확성, 해석의 적절성
	『프랑켄슈타인』	충실성, 가독성					『통치론』
	『모비딕』	번역 현실 점검 향후 방향 모색		『자유론』	충실성, 가독성, 해제와 역주의 유용성		
	『젊은 예술가의 초상』	충실성			『공리주의』	충실성, 가독성	
	『거인의 도시』, 『홍내』	가독성, 충실성, 오역 최소화		『자본론』 1-3		정확성, 가독성	
	『올리버 트위스트』, 『 어려운 시절』, 『위대한 유산』	형식 : 온전성 내용 : 정확성, 가독성, 등가성			『비극의 탄생』	충실성, 가독성	
	『제인 에어』	충실성				『꿈의 해석』	충실성, 가독성
	『무기여 잘 있거라』	정확성, 가독성, 오역 의 빈도와 지속성					
	『비러비드』, 『재즈』	정확성, 가독성					
	『엘리스』	정확성, 가독성					
	『오토란토 성』	번역의 혼선이 빛나는 문제점 점검					
『뉴욕 3부작』	역자의 문화 해독력						

뉴 마크는 역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서 ‘모국어 쓰기 능력’을 꼽았다. 모국어 쓰기 능력이란, “모국어로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노련하게 주제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언어 사용역(register)을 사용하여 ‘평범한<sup>8)</sup>’ 언

8) Newmark(1991)는 ‘평범함’이란 꾸밈없이 진솔하게 직설적으로 분명하고도 진지하게

어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Newmark 1991)을 말한다.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는 번역을 하려면 “원문에 대한 해석이 옳아도 어색하거나 비문(非文)이 되는 경우”(이종일 『젊은 예술가의 초상』: 234)는 지양해야 한다. 가령 다음의 TT에서 ‘발걸음이 팔 아래 있다’는 번역의 정확성을 떠나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비문의 예이다.

“ST : whose feet are as the feet of harts and underneath the everlasting arms...

TT : 그의 발걸음은 숫사슴의 발걸음 같고 영원한 두 팔 아래 있도다.”(홍덕선 2권 40)

(이종일 『젊은 예술가의 초상』 : 235)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예를 지적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왕철은 『홍내』에서 “ ‘우리말 구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어서 ‘역자의 문장은 문맥을 전달하기는커녕 읽는 사람을 헛갈리게 한다.’ 그리고 ‘어법이 맞지 않는 문장’,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 등 ‘불완전하고 엉겨주춤한 우리말 표현은 수없이 많다”고 개탄하였다(316).

“안타까운 일이지만, 난 그것을 기뻐함으로써 샌드리를 고무했다.”(정영목 87)

“우리는 열린 창문 앞에 섰는데, 그 창은 싱싱하고 똑똑 듣는 듯한 초록을 내다보고 있었다.”(정영목 88)

“공원의 나무 하나가 일련의 가속화되는 따귀에 신음을 토하다 천천히 쓰러지더니, 옆으로 누워 자신의 나뭇가지들을 베고 흔들리고 있었다.”(정영목 21) (왕철 『홍내』: 316)

지금까지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을 점검하는 세 번째 요건으로 ‘번역 전략’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번역 전략은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은 물론 내적인 용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번역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역자는 번역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전에 미리 ST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의 성격에 가장 알맞은 번역 전략을 수립하기

그리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단순한 특징을 지니며, 1:1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결과 ‘충실성’, ‘가독성’ 혹은 ‘충실성과 가독성’을 각각 혹은 보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여 일관성있게 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 번째로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역자는 신중한 ‘번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2.1.2 번역 텍스트의 내적인 용인성 점검

비평가들이 번역 텍스트의 내적인 용인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어휘, 문장과 문단 그리고 역자의 부주의로 인한 첨가, 누락, 탈자, 오식 등의 현상에 매우 주목한다. 이들 요소는 텍스트의 내적인 용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며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 2.1.2.1 어휘

번역 텍스트의 내용을 점검할 때 무엇보다도 어휘 번역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지적된다. 특히 비평가들은 비문학 텍스트에서는 개념어나 핵심어와 관련된 어휘의 번역에 주목했다. 그리고 문학 텍스트와 비문학 텍스트에서 어색한 한자어나 역자의 배경 지식 부재로 인한 부적절한 어휘 번역 등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하였다.

##### 1) 개념어와 핵심어

“번역이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는 개념어와 상용문구의 번역을 상호 대조하면 그 윤곽의 일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박차섭 『군주론』)

“개념의 부정확한 번역은 그 자체로 오류이면서 저술가의 의도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정달현 『통치론』)

“핵심 번역어부터 오류로 얼룩진 프로이트의 가장 중요한 저작” (이덕하 『꿈의 해석』)

따라서 비문학 텍스트를 번역하는 역자는 어휘 번역 시 작품 이해의 밑거름이 되는 개념어와 핵심어 번역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 2) 어색한 한자어

“‘질서’의 단초”라는 구절에서 ‘질서’는 낯익은 말이지만 ‘단초’라는 한자어는 생경하기 그지없다.”(왕철 『홍내』: 311)

“양병석의 번역에 ‘비보통(非普通)학교’는 ‘the uncommon school’을 직역한 것으로 강승영처럼 ‘성인들을 위한 학교’가 더욱 자연스런 우리말로 독자에게 다가올 것이다.” (조철원 『월든』 187)

“같은 작품이라도 시대가 바뀌면 언어와 감수성이 변하므로 ..... ‘폐적(廢嫡)당한(disinherited)’이나 ‘근골이 뒤를 이을 자가 없어진’(이승근 23)의 표현은 ‘상속권을 박탈당한’(김승순 5)보다 정확하지만, 평상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말이다. ..... 한글 세대로 하여금 영미의 고전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애경 『싸일러스 마니』: 292)

한글세대에게 한자어는 작품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시대에 따라 독자의 언어에 대한 감수성과 수용성이 달라지므로 역자는 번역 텍스트에서 지나친 한자어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 3) 역자의 배경 지식 부재로 인한 부적절한 어휘 번역

“한기찬의 번역본에서 ‘The Times Square Shuttle’를 ‘『타임스』 스퀘어편’으로 처리해서 타임스퀘어 순환선 지하철 노선을 엉뚱하게 신문이나 책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다.”(유정완 『뉴욕 3부작』: 244)

“『군주론』 헌정사 첫머리에 “Noclaus Machiavellus Magnifico Laurentio Medict iuniori salutem”에서 국역본 모두 ‘위대한(훌륭하신, 공적이 높은 신) 로렌초 전하(각하)께 바칩’으로 옮겼다. ‘위대한 ..... 전하’에 해당하는 Magnifico는 르네상스 도시 공화국에서 실권자이기는 하나 귀족 칭호를 받지 못한 인물에 대한 존칭이었다. 따라서 그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왕이나 공작을 가리키는 ‘전하’라는 칭호로 부를 수 없다.” (곽차섭 『군주론』)

“‘편안한 연기자’로 번역한 ‘Snug the joiner’는 『한여름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의 극중극에서 사자 역은 맡은 ‘가구장이 스

너'의 착오이다.” (신현옥 『오토란트 성』: 215)

역자의 배경 지식은 ‘충실한’ 번역을 위하여 텍스트 번역 전반에서 주도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역자는 어휘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유의하여 원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 2.1.2.2 문장과 문단

많은 비평가들은 역자가 ST의 문장이나 문단을 자의적으로 연결하거나 나누어 번역하는 전략을 간과하지 않는다. 특히 ST의 길이가 길 때 역자가 적용한 번역 전략을 ST와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여 비평한다. 비평가에 따라 역자의 자의성을 허용하는 범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 1) 역자의 자의성을 허용하는 경우

“...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에서 친절하게 쉼표 두 개를 사용하여 주어와 목적어, 술부로 나누어 원문에는 충실하지만 문장이 길어 거의 요령부득이며, .....에서는 한 번 끊어 해석하였으며, .....은 번역은 무난하나 원문대로 아홉 줄이나 되는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붙여 번역하여 찬찬히 읽지 않으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좀 더 나누어 번역하거나 쉼표를 좀 더 사용하는 것이 낫다.”

(한애경 『싸일러스 마너』: 286)

##### 2) 역자의 자의성을 불허하는 경우

"역자는 다분히 문어적이고 각종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 수많은 쉼표(;)으로 연결된 긴 문장을 어떻게 최대한 그 느낌을 살리면서 현대 독자에게 쉽게 읽히는 매끈한 문장으로 번역할까 고민할 것이다. 역자들은 문장을 짧게 자르고 문단까지 나눔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 같다. .... 원문의 하나의 문단이지만 번역본은 이를 넷으로 나누어 놓았다. 원본과 번역본을 대조할 때 번역본이 문단을 자의적으로 나누는 점이 의아했다. 필자는 문단 나누기는 원칙적으로 번역본은 원본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 가독성만 염두에 두고 호흡이 길고 생각이 중첩되는 작가 원래의 문체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미까지 왜곡시켰다.”(김순원 『프랑켄슈타인』: 265-66)

“강승영과 양병석 모두 번역문에서 문장과 문단을 자주 나누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밝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조철원 『월든』: 187)

문장과 문단의 길이와 관련된 역자의 자의성은 비평가마다 시각이 다르다. 역자는 가능한 ST의 형식을 따라야 하지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장은 어느 정도 분할이 가능하지만 문단은 원문의 구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가독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2.1.2.3 역자의 부주의(첨가, 누락, 오식 등)

비평가들은 역자가 원문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문을 첨가 혹은 누락시킨 번역 전략에 절대적으로 관대하지 않다. 그들은 역자의 부주의로 인한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낮추는 요소로 간주한다.

#### 1) 첨가

‘그는 ‘방적기가 ... 어디에서나’(23면)는 본문에 없는 밑줄 친 부분의 설명을 첨가하는 과잉 친절을 베풀고 있다. .... 이렇게 원문에 없이 첨가된 부분들은 ..... 문학 작품에서는 필요없는 군더더기다.’(한애경 『싸일러스 마너』: 288)

‘거의 모든 문단에 이런 어휘를 첨가하거나 중복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유용하고 좋은 번역이라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칫 원문의 간결성과 긴장감을 해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유정완 『뉴욕 3부작』: 237)

#### 2) 누락

‘조대경 역은 원문에 있는 참고문헌을 상습적으로 생략했다.’(이덕하 『꿈의 해석』: 332)

‘이론과 실천 판에서 ‘사회적’이 빠져 있다. .... 누락은 오역과 다름없다.’(홍영두 『자본론』: 303)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간혹 원문의 일부가 번역본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다. 황보석의 62면에는 원문 45면에 있는 ‘He sat there impassively’의 번

역이 누락되어 있다.’(유정완 『뉴욕 3부작』: 247)

### 3) 오식

‘화폐 개념에서 황보석이 ‘quarter’를 ‘25전’ 또는 ‘25센트’로 하지 않고 ‘5센트’로 처리한 것은 인쇄 과정상의 누락이거나 화폐 단위에 대한 부주의의 산물일 것이다.’(유정완 『뉴욕 3부작』: 243)

비평가들은 번역 텍스트를 비평할 때 ST와 비교하기 때문에 첨가나 누락 혹은 오식은 가장 눈에 띄기 쉬운 번역의 오류 현상이다. 역자는 번역 전략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모양은 같지만 기능이 다른 문장 부호(영문과 한글의 세미콜론이나 콜론) 혹은 가독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하되 되도록이면 원문의 문장 부호까지 세심하게 반영하여 ST의 형식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 III. 결론

지금까지 번역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비평가들이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요건을 텍스트의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위에서 논의한 사항에 근거하여 ‘번역 텍스트의 외적인 용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자가 고려해야 할 우선적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자는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독자적인 번역본’ 작업에 임해야 하며 ‘ST는 물론 TT의 서지 정보를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자는 대상 번역 텍스트에 있어서 ‘역자의 총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번역가’가 되어야 한다. 셋째, 역자는 번역의 목적에 맞는 ‘번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번역 텍스트의 내적인 용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첫째, 역자는 어휘 번역 시 작품 이해의 밑거름이 되는 개념어와 핵심어 번역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한자어 사용을 자제하고 ST에 대한 배경지식 부재에서 오는 어휘 번역의 오류를 지양해야 한다. 둘째, 역자는 문장과 문단의 길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ST의 형식을 따르지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장은 어느 정도 분할이

가능하지만 문단은 원문의 구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자는 번역 전략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모양은 같지만 기능이 다른 문장 부호(영문과 한글의 세미콜론이나 콜론) 혹은 가독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 예외는 인정하되 되도록이면 ST의 내용을 구두점까지도 가감 없이 번역본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역자가 '번역 텍스트의 내·외적인 용인성 확보'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건은 비평가의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번역 학자, 출판 관계자 그리고 독자를 포함한 번역과 관련된 여러 인적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동일한 작품에 대한 복수의 비평 텍스트를 활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는 물론 비평가들이 주목하는 다양한 번역 텍스트의 내·외적인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문 비평지와 전문 신문에 연속적으로 게재된 비평 전문가들의 실명 비평 텍스트는 번역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용인성 점검 요소는 최소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번역 텍스트의 내·외적인 용인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역자와 출판관계자들이 번역 전략을 수립할 때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병철. 1998. 『한국 현대 번역 문학사 연구 上』. 서울 : 을지문화사.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
- Holmes, James S. 1972.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ed. Lawrence Venuti.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75-182.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ewmark, Peter. 1988. *Approaches to Translation*. Hertfordshire: Printice Hall Europe.
- \_\_\_\_\_. 1998. *A textbook of Translation*. Hertfordshire: Printice Hall Europe.

- \_\_\_\_\_. 1991. *About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on i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Toury, Gideon. 1980. *In Search of a Theory of Translation*. Tel Aviv: The Porter Institute.
- \_\_\_\_\_.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분석 대상 번역 비평 텍스트

- 영미문학연구회. 1997-2006. 「번역을 짚어본다」, 『안과밖』 2권-20권.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귀룡 외. 2005년 11월 8일 - 2006년 1월 9일.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교수신문』. 서울 : 교수신문사.

#### 신문기사

- ‘대리번역’ 논란과 출판계의 부끄러운 자화상.’ 『경향신문』 2006-10-13.
- ‘이윤기씨 ‘그리스 로마신화’ 번역 논쟁.’ 『매일신문』 2004-06-14.
- ‘소설 ‘다 빈치 코드’ 오역 시비로 곤욕.’ 『연합뉴스』 2005-03-06.

#### 참고인터넷 사이트

대한출판협회 : <http://www.kpa21.or.kr/dataroom>

부록 분석 대상 번역 비평 텍스트 목록

① 출전: 『안과밖』의 〈번역을 짚어본다〉

장르	번역 비평 텍스트 제목	비평가	출전
소설	최근에 나온 『월든』 번역본 평가	조철원(인하대)	2권 171-88
	공든 번역, 영문학 연구의 쓸모 토마스 하디의 『테스』 번역본 점검	김명환(성공회대)	3권 291-308
	새로운 『아들과 연인』 번역을 위한 몇 마디 제언	유두선(홍익대)	4권 290-314
	조지 엘리엇의 『싸일러스 마너』 번역본 점검	한애경 (한국기술교육대)	7권 278-95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	김 번(한림대)	8권 297-318
	메어리 세리의 『프랑켄슈타인』	김순원(경원대)	9권 259-78
	『모비딕』번역의 문제점	김진경(서울신학대)	10권 69-88
	번역의 어려움과 재미: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두 번역본	이종일(서울대)	11권 223-39
	나이폴 소설의 번역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거인의 도시』와 『홍내』를 중심으로	왕 철(전북대)	12권 299-319
	찰스 디킨즈 소설의 번역점검	이인규(국민대)	13권 254-79
	살롯 브론테의 『제인에어』 번역본 점검	장정희(광운대), 조애리(과기원)	14권 153-73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번역점검	황정아(서울대)	15권 242-66
	토니 모리슨 소설 점검: 『버러비드』와 『재즈』를 중심으로	설준규(한신대)	16권 201-24
	‘이상한 나라’를 넘어서 컨텍스트의 세계로: 『앨리스』 번역 검토	한혜정(부산대)	17권 171-94
	호러스 월폴의 『오토란토 성』: ‘로맨스’와 ‘소설’의 경계	신현욱(방송대)	18권 206-27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 문화 해독력과 번역의 문제	유정완(경희대)	20권 226-49	

② 출전 : 「교수신문」의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장르	번역 비평 텍스트 제목	비평가	전공 및 교수과목	출전
비 문 학	『국가』 Politeia	김귀룡(충북대) 이상인(연세대)	서양고대철학 철학, 고전문헌학	2005년 11월 8일
	『정치학』 Politica	김주일(성균관대)	서양고대철학	2005년 11월 12일
	『시학』 Poietike	김 현(서울대)	고전그리스문학	
	『군주론』 Il Principe	곽차섭(부산대)	서양근대사	2005년 11월 19일
	『로마사 논고』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e Tito Livio	곽준혁(경북대)	서양정치사상	
	『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정달현(영남대) 김성우(상지대)	서양정치사상 서양근대철학	2005년 11월 28일
	『자유론』 On Liberty	허남걸(동국대)	윤리학	2006년 4월 4일
	『공리주의』 Utilitarianism	강준호(경희대)	윤리학	
	『자본론』 Das Kapital	홍영두(한국철학 사상연구회)	서양철학	2005년 12월 17일
	『비극의 탄생』 Die Geburt der Tragödie	박찬국(서울대)	철학	2006년 1월 2일
	『꿈의 해석』 Die Traumdeutung	이덕하(프로이트 전문번역가)	『끝낼 수 있는 분석과 끝낼 수 없는 분석』, 『정신 분석 입문』, 『꿈의 해석』번역	2006년 1월 9일





[Abstract]

**Acceptability of Translations:  
Focused on Translation Critics' Views**

Jeon, Hyunju  
(Sej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rerequisites of the stable internal and external “acceptability” of the target texts(TT), which translators should follow. TT processed through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tests openly is considered as the authentic TT which has its acceptability.

The translation criticism texts(TCTs) are the most effective mechanism in catching out the requirements of TT's acceptability straightforwardly, for they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source text(ST) and TT.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the elements required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acceptability of the TT's,’ focusing on the critics' viewpoints on the existed translation phenomenons in TCTs. And it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29 TCTs in one of the most authentic Korean academic journals, *In/Out: English Studies in Korea* and specialized newspapers, *Kyosu Newspaper*.

After reviewing the critics' views in TCTs, it is found that they focus on internal and external elements of the texts evenly. Separating them into ‘extra-text's elements’ and ‘intra-text's elements,’ it is clearly surfaced that their major checking elements for TT's acceptability are such as ‘TT's publishing records in target culture’, ‘translator's qualification’, ‘translation strategy’; ‘vocabulary, sentence and paragraph translations’, and ‘translator's carelessness’. At first, regarding the ‘extra-text's elements’, critics placed a great emphasis on the translators' ethical attitude against undesirable translation

practices including plagiarism, extracting translation, embellishment translation, combined translation and so on. And, concerning translators' qualification, they require them to possess abundant background knowledge on ST and its culture in particular. If translators don't have this quality, they can be called 'culturally illiterate' and 'lack of translation ability' harshly. And the third, translators try to establish appropriate translation strategy to meet the ST's faithfulness and precision and TT's readership and expectation.

In the 'intra-text's elements' of TT's acceptability, the critics notice the degree of translators' adaptation to ST in the first place. Thus they thoroughly point out the problematic translated cases comparing ST with TT like awkward word and sentence translations, omissions, additions and subtractions, misprints of ST, the sentence and paragraph arrangements and etc. Besides they deplore the inappropriateness and unnaturalness of the target language usages. In brief, translators should try to meet the ST's author and TT's readers' expectation effectively.

The eventual goal of this thesis is to encourage and direct translators to make the effective translation strategies. By the same token, the purpose of Translation Studies is to make the measurement grids to filtering the TT's acceptability. And the guarantee of TT's acceptability is the eventual target of all TTs. Accordingly considering the role of public recognition tools to endow TTs with their acceptability, above proposed TCTs' pinpoints and critics' views are conversely translated and should be adapted as the translators' guideline to follow in translation.

►Key Words: acceptability, translation criticism, translator's guideline, plagiarism, translation strategy

전현주

세종대 번역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번역비평가 평가, 번역과 후기식민주의, 다중체계이론, 기능주의 이론

연락처: transju@hanmail.net

논문투고일: 2006년 10월 17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8일

K C I